여섯 살 눈높이로 만나는 유럽
AI와 만든 꼬마 탐험책

분야 : 교육·학습을 위한 AI 활용

활용 도구 : ChatGPT

한 줄 소개 : 여섯 살 아이의 유럽 박물관·미술관·정원 방문을 준비하며 ChatGPT와 탐험책을 만들고, AI가 만든 질문을 아이와의 활동에 활용한 사례입니다.

1. AI를 활용하게 된 계기

가. 방문 장소를 아이의 질문으로 연결

- 여섯 살 아이와 유럽의 박물관·미술관·정원 방문을 준비하면서, 아이가 눈앞의 대상을 관찰하고 자신의 생각을 표현할 수 있는 활동을 만들고 싶었습니다. 런던 자연사 박물관과 과학박물관을 비롯해 장소의 특징에 맞는 탐험책을 만들었습니다. 자연사박물관은 2026년 9월 11일, 과학박물관은 9월 13일에 방문했습니다.

나. 부모가 함께 읽어줄 수 있는 자료

- 설명을 길게 읽어주거나 모든 답을 글로 쓰게 하는 대신, 부모가 짧게 질문하고 아이가 관찰하거나 말과 그림으로 답할 수 있는 탐험책을 만들기로 했습니다. ChatGPT는 부모가 설명할 내용과 질문을 준비하는 데 활용했습니다.

2. AI를 활용한 방법

가. 아이와 활동 환경의 조건 전달

- 아이의 나이와 방문 장소, 활동 방향을 ChatGPT에 전달하고 관찰·예상·체험·표현 활동을 요청했습니다. ChatGPT가 만든 질문은 수정하지 않고 실제 활동에 그대로 사용했습니다.

나. 장소의 특징에 맞춘 활동 구성

1) 자연사박물관 관찰 활동

가) 눈앞의 특징 찾기

- ChatGPT가 만든 탐험책에는 전시물을 찾아 모양과 크기의 단서를 관찰하는 질문이 담겼습니다. 고래 골격을 살펴보는 활동처럼 눈앞의 대상을 보고 이야기할 수 있는 구성입니다.

나) 부모가 참고할 설명

- 탐험책에는 부모가 참고할 설명과 출처도 함께 담았습니다. 아이에게 보여줄 질문뿐 아니라 활동을 안내할 때 참고할 내용을 ChatGPT와 준비했습니다.

2) 과학박물관 탐구 활동

- 과학박물관 탐험책에는 먼저 예상하고 체험한 뒤 결과를 말로 설명하는 흐름이 담겼습니다. 마찰을 다루는 활동에서는 표면에 따라 어떤 일이 생길지 생각하고, 체험 뒤 예상과 관찰을 비교할 수 있도록 구성돼 있습니다.

3) 미술관·정원에서 관찰하고 그림으로 표현하기

- 작품이나 정원에서 본 것을 관찰하고, 아이가 자신의 생각을 그림으로 표현할 수 있는 활동도 담았습니다. 모네 정원 탐험책에는 '내가 정원을 만든다면'이라는 질문에 따라 다리·수련·나무·하늘 등을 새롭게 그려보는 활동이 있습니다.

3. 활용 결과

가. 탐험책 7권 제작과 실제 활동

- 총 7권의 탐험책을 완성했습니다. 그중 자연사박물관 탐험책 개정판 10쪽과 과학박물관 탐험책 12쪽을 대표 자료로 소개합니다. 탐험책에는 관찰·예상·체험·그림 활동과 부모가 참고할 질문, 설명, 출처를 담았습니다.
- 완성한 탐험책을 아이와 함께 사용했습니다. 여섯 살 아이가 질문에 따라 활동했으며, 그 과정과 결과를 아래 사진과 활동 자료에 담았습니다.

나. 활동에 따라 선택할 수 있는 구성

- 탐험책에는 현장에서 찾아보기와 짧은 질문에 집중하고 그림과 정리는 관람 뒤에 이어갈 수 있도록 안내돼 있습니다. 과학박물관 자료에는 미래의 기계를 상상해 그리는 활동도 담겨 있습니다.

다. 아이의 실제 활동 결과

1) 모네 정원 탐험책의 그림 활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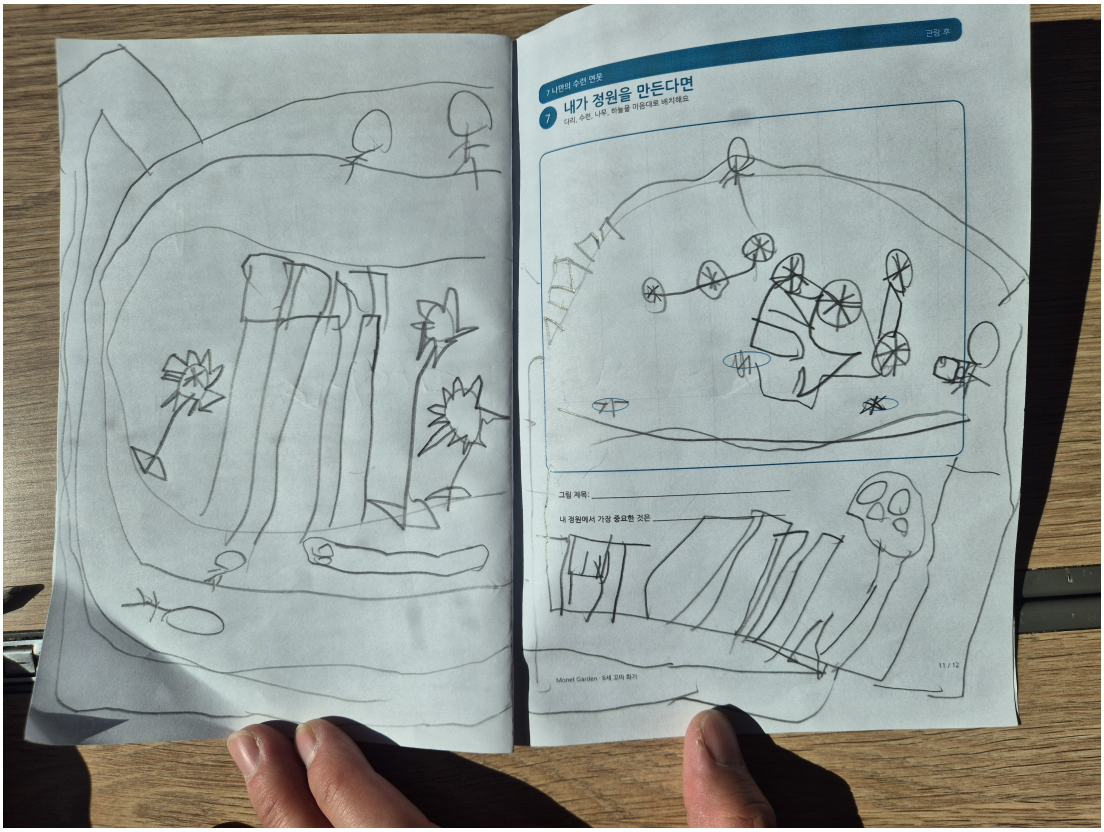


사진 1. 모네 정원 탐험책의 '내가 정원을 만든다면' 활동에 아이가 직접 그린 결과입니다.

2) 작품 감상과 그림 표현



사진 2. 작품을 감상한 뒤 아이가 그림으로 표현한 결과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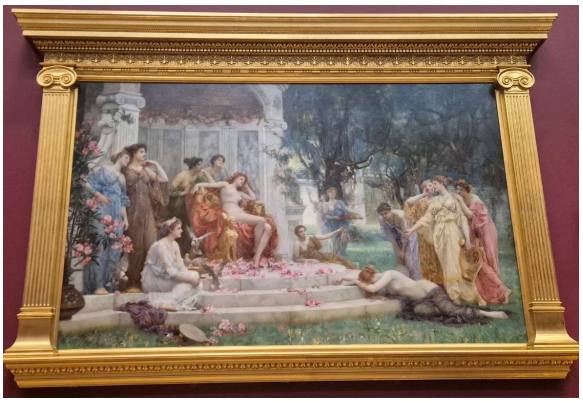


사진 3. 아이의 그림과 함께 제시한 감상 작품 사진입니다.

라. 제작한 탐험책 7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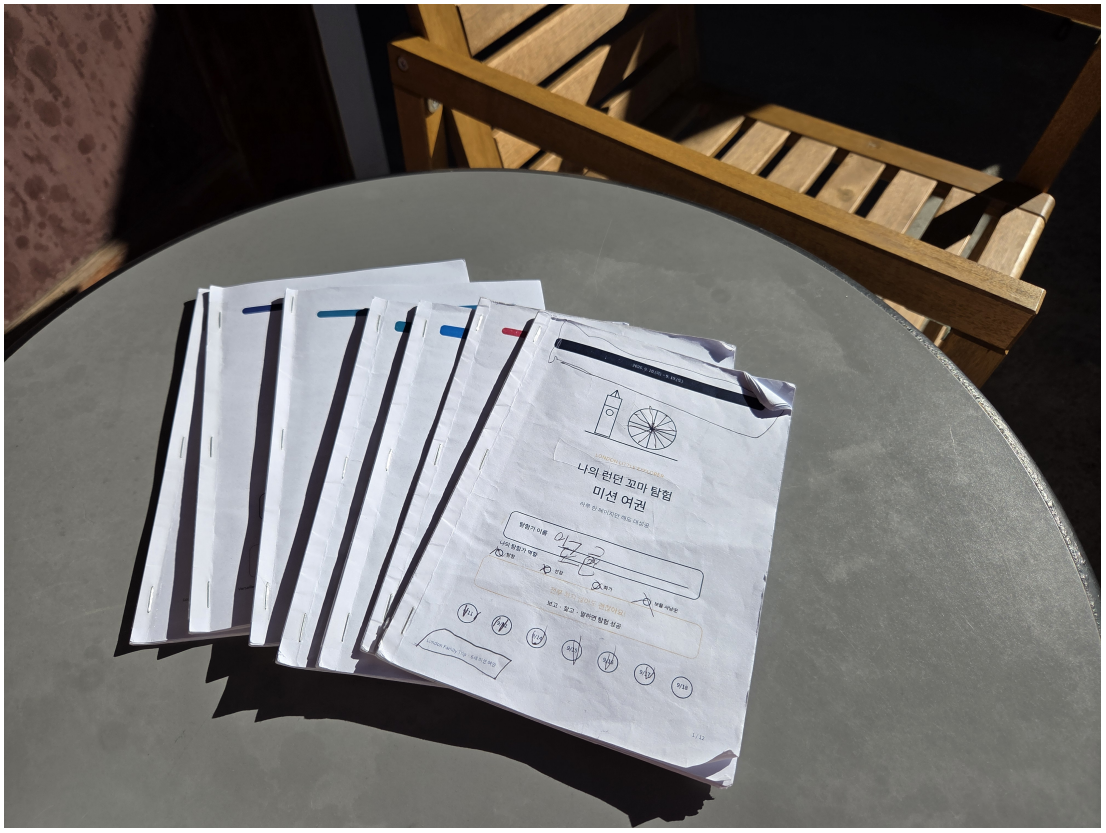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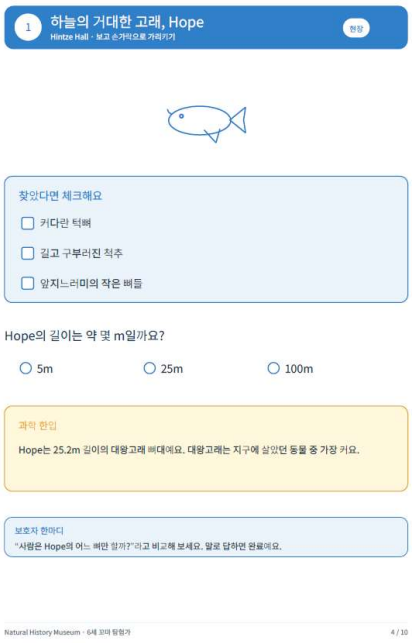


사진 4. 유럽 여행을 위해 제작한 탐험책 7권의 실물입니다.

마. 과학 관찰 질문 원본 예시

- 자연사박물관 탐험책의 고래 골격과 공룡 관찰 질문입니다. 작성 전 원본으로, 과학 관찰 활동의 구성을 보여줍니다.



자료 1. 자연사박물관 탐험책 4쪽의 고래 골격 관찰 질문입니다.



자료 2. 자연사박물관 탐험책 5쪽의 공룡 관찰 질문입니다.

4. 나만의 활용 방식

가. 여섯 살 아이가 참여할 수 있는 활동

1) 글쓰기 외의 표현 방법

- 탐험책에는 손가락으로 가리키기, 말로 답하기와 부모가 대신 기록하기도 가능하다고 안내돼 있습니다. 모든 답을 글로 쓰지 않아도 생각을 표현할 수 있는 구성입니다.

2) 활동량과 순서의 선택

- 일부 활동만 해도 탐험을 끝낸 것으로 인정하고 피곤하면 멈출 수 있도록 안내돼 있습니다. 아이의 체력과 관심에 따라 활동량을 선택할 수 있는 자료입니다.

나. 아이의 조건을 구체적으로 전달

- ChatGPT에는 아이의 나이, 방문 장소와 원하는 활동을 구체적으로 전달했습니다. 여섯 살 아이에게 맞는 질문과 활동을 만드는 기준을 먼저 정한 것이 저의 활용 방식입니다.

5. 다른 사람이 활용하는 방법

가. 나이와 활동 조건에 맞춘 질문 요청

- 아이의 나이, 관심 주제, 방문 장소와 활동 시간을 정한 뒤 전시물별 짧은 질문을 요청합니다. 말로 답하거나 직접 가리킬 수 있는 활동과 부모 안내를 함께 구성할 수 있습니다.

나. 내용과 활동량 확인

- 공식 안내와 비교해 전시물과 설명을 확인하고, 아이에게 어렵거나 현장에서 하기 힘든 활동은 줄입니다. 부모가 먼저 읽어보며 표현을 점검한 뒤 실제 사용 경험에 따라 자료를 수정할 수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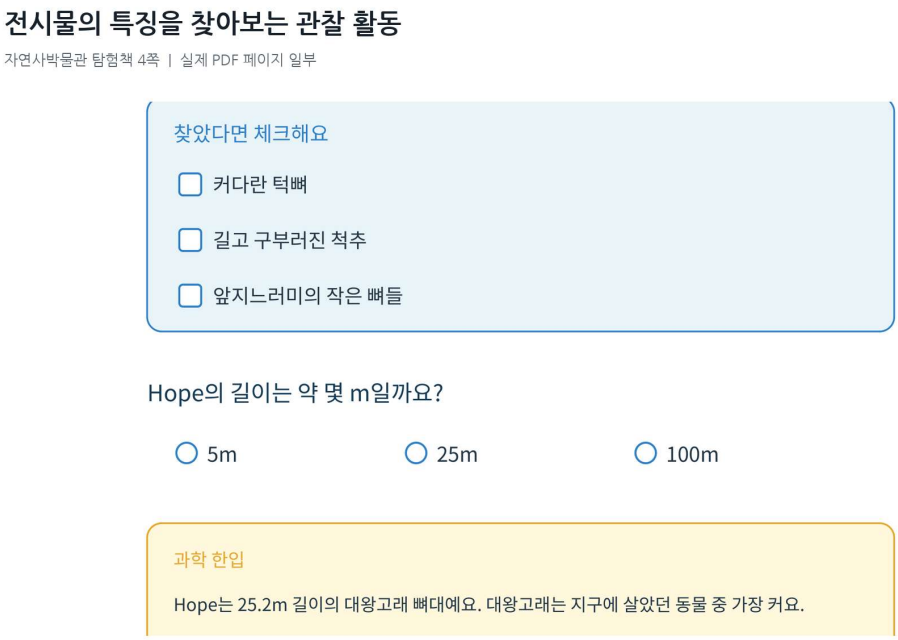
6. 관련 자료

가. 탐험책 표지 예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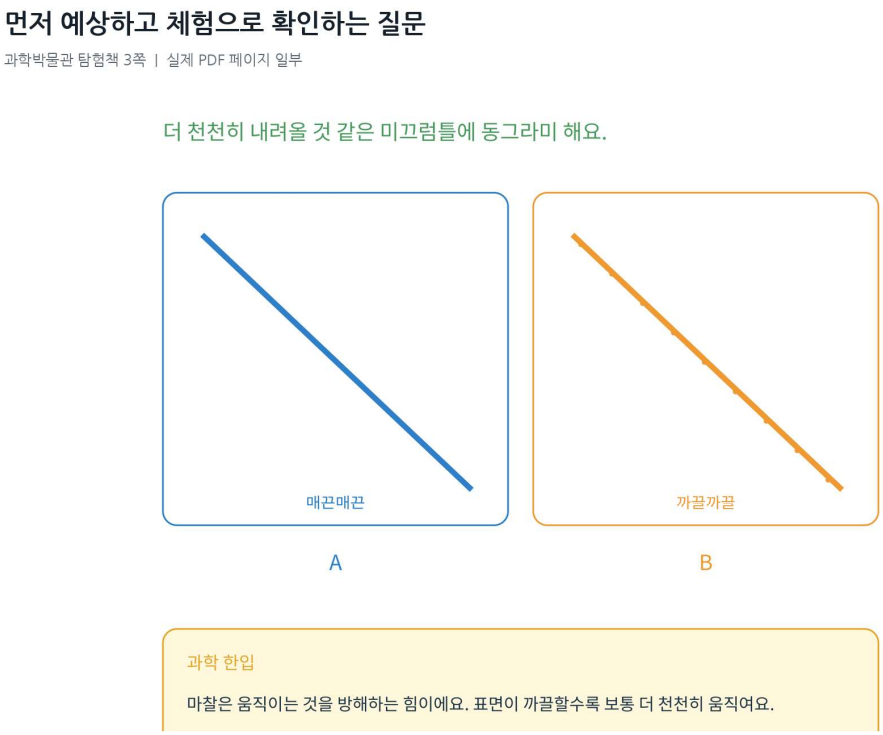
자료 3. 자연사박물관과 과학박물관 탐험책의 표지 예시입니다.

나. 자연사박물관 관찰 활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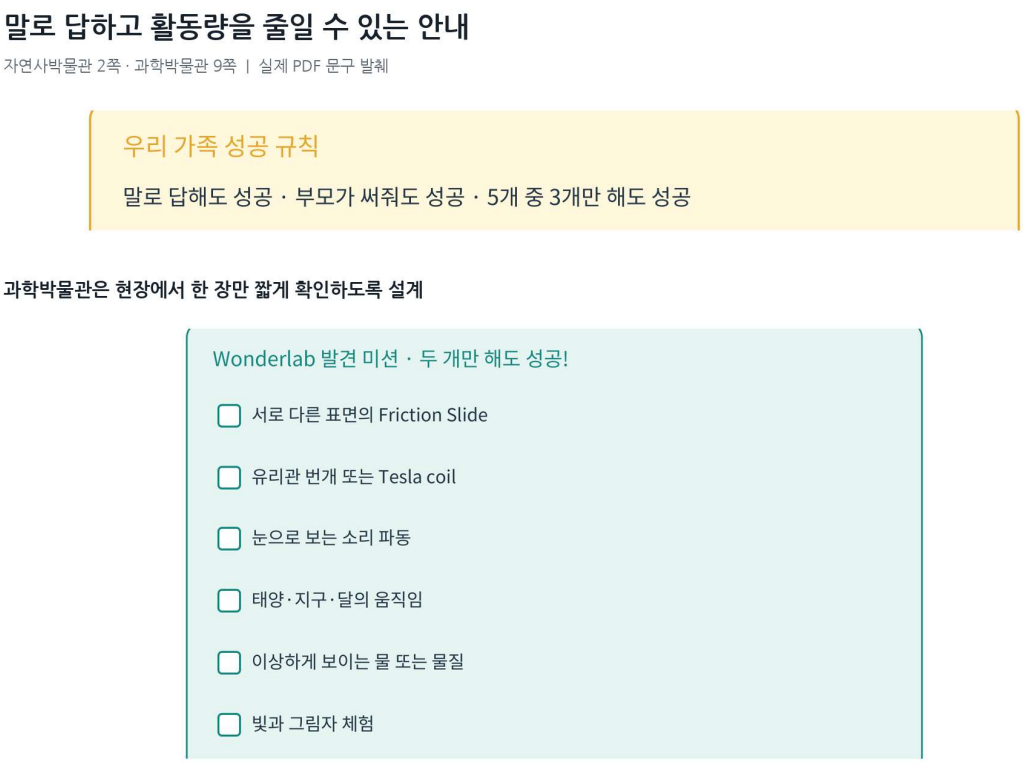
자료 4. 자연사박물관 탐험책 4쪽 중 전시물의 특징을 찾아보는 활동입니다. 작성 전 원본을 발췌했습니다.

다. 과학박물관 예상과 체험 활동



자료 5. 과학박물관 탐험책 3쪽 중 예상한 뒤 체험으로 확인하도록 준비한 활동입니다.

라. 표현 방법과 활동량 안내



자료 6. 자연사박물관 2쪽과 과학박물관 9쪽의 안내를 발췌했습니다. 아이의 표현 방법과 활동량을 선택할 수 있도록 구성한 자료입니다.

마. 자료 출처

- 직접 제작한 탐험책 7권과 아이의 실제 활동 사진·그림을 바탕으로 작성했습니다. 관련 자료에는 「런던 자연사박물관 6세 꼬마탐험가 워크북 개정판」과 「런던 과학박물관 6세 꼬마과학자 워크북」을 발췌해 실었습니다. 전시 관련 참고 주소는 각 원본 자료에 표시했습니다.